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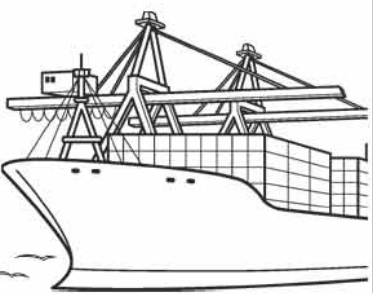
여수·광양항 물동량 회복 조짐

항로개설·신규 선대 유치 등
한진해운 사태 후 극복 노력
4월 현재 전년비 4.5% 증가
수·출입 물량 확보에 총력

국내 수출입 1위이자 국내 최대 복합물류 항만인 여수·광양항의 물동량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지역사회는 공동으로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컨테이너물동량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5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까지 여수·광양항에서 처리한 총화물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9610만톤을 기록했다. 공사 측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비한 석유화학 원자재의 수입화물 증가와 기계·차량 및 부품 및 시멘트류의 교역량 상승 등으로 인해 총물동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수·광양항의 1~4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한 71만6000TEU에 그치면서 아직까지 한진해운 사태와 글로벌 얼라이언스 개편에 따른 선대 축소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상해, 닝보 등 중국 항만들이 일정 물량 이상을 처리한 선사의 하역료를 감면하는 등 공격적인 환적 화물 유치 전략을 추진하면서 광양항의 환적화물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사 측은 분석했다. 또 짙은 해무로 작업이 지연됐던 중국 항만의 물량이 풀리면서 4월까지 컨테이너 환적물량이 증가했던 부산항과는 달리 광양항은 글로벌 얼라이언스 선대 감소로 인한 연결선대 부족으로 계절적인 혜택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

터 항로개설 인센티브 20억원을 신설해 원양항로, 인트라아시아 항로 서비스 개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트라아시아 선대를 적극 유치해 동남아 지역의 수출입 물량과 환적물량을 증대시키는데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동남아 서비스 항로수가 늘면서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다수의 선대가 광양항에서 철수했음에도 주당 88항자의 항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동량 역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선정덕 마케팅 팀장은 “여수·광양항의 총물동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컨테이너물동량도 연간 목표를 놓고 볼 때 4월 현재 95%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점차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제철소, '주니어 공학교실' 호응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는 최근 지역 사회공헌활동으로 광영초등학교와 태인초등학교 6학년 56명에게 과학원리의 이해를 돕는 2017년 상반기 '주니어 공학교실'을 열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유소년들에게 '철'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2014년 9월부터 매년 2회씩 서울, 포항, 광양에서 개최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황금산단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난항

市 “시민 원하지 않으면 반대”

광양시가 황금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에 대해 시민이 원하지 않은 발전소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광양그린에너지(주)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6800억원을 투

자해 14만 3653㎡ 부지에 순수 목질계(우드펠릿)를 원료로 사용하는 220MW급 발전소다. 황금일반산업단지 내에 건설예정인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인근에 5만1000여 명이 거주하는 광양읍과 고흥읍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발전소 착공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광양그린에너지(주)

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고흥읍주민센터에서 개최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았다. 또 지난 4월 여수 읍촌면사무소와 광양읍사무소에서 개최된 추가 주민설명회에서도 반대에 부딪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환경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市 - 베트남 광남성

우호교류 협약 체결

무역·관광 등 협력 추진

광양시는 “지난 10일 베트남 첫 경제특구이자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베트남 중부 광역급 지방정부인 광남성(Guang Nam Province)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남성에서 열린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시의회 의장 등 광양시 대표단을 비롯한 딘반투(Dinh Van Thu) 광남성장, 레반탄(Le Van Thanh) 광남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내외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경제 무역 교류와 투자 확대, 향산물류, 관광, 보건 분야 교류 협력 추진,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인도네시아 필레곤시, 필리핀 카가얀데오로시, 중국 선전시 등 해외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우호교류 사업을 전개중이며 이번 협약으로 광양시의 자매·우호 도시는 9개국 17개 도시로 늘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경제청, 여수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통

왕복 2차선·492억 투입

신규사업 투자유치 기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의 교통편의 증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화양지구 간선도로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개통된 도로는 화양면 이목리에서 안포리까지 동서노선 6.14km와 장수리에서 안포리까지 남북노선 2.31km로 총 연장 8.45km이며, 도로 폭은 인도를 포함해 12m로 왕복 2차선으로 건설됐다. 이 도로는 국비 222억원 등 총 49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1년 10월 착공해 5년 7개월 만에 개통됐다. 그동안 화양지구 관광단지 이목리와 안포리는 진입도로가 없는데다, 개발사업자

의 재정 사정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아왔던 곳이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화양면 이목리와 안포리 일원의 개발예정지에 대한 개발여건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신규 개발사업의 투자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산림경영 여건 개선 등으로 산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통과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이 2018년, 국도 77호선(여수~고흥)이 2020년 준공되면 화양지구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제공모 당시 투자여향을 보였던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발여건 변화를 적극 설명하는 등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엔젤유치원, 119소방동요 최우수 광양시는 “광양 엔젤유치원(원장 김선희)이 최근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빛홀에서 열린 119소방동요 대회에 광양소방서 대표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도내에서 각 지역 대표로 초등부 7개팀과 유치부 6개팀이 출전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광양제철소 현장체험 도전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가 K리그 휴식기를 이용해 최근 광양제철소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현장체험에는 구단 임직원, 노상래 감독, 코칭스텝, 지원스텝 및 선수 전원이 참여했다.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은 광양제철소에서 홍보영상을 관람한 뒤 생산기술부, 제선부, 화성부, 제강부 등 8개 부서

에 배정돼 직업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각 부서에서는 안전교육 및 Tool Box 미팅을 실시한 후 실제 현장에 투입돼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원료 야적장 퇴적물 청소, 콘베어벨트 정비, 기계 오일 교환 등 포스코 직원들과 동일한 작업을 체험하도록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급대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할도 적합 6800
- 시골주택 담양 봉산면 연동리 대지 952㎡ 주택 55㎡ 1억6천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판선과 농경지합 5억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2층 상가 주택 대지 133㎡ 건평 143㎡ 1억4300
- 월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352㎡ 주택168㎡ 5억2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 6백
- 월산동 4세대 생활가능지 대지 313㎡ 집146㎡ 교환가 2억5천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3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독립심 56233㎡ 신안군 암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월산동 보라아파트부근 상가1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화순읍 복숭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상가건물

- 월산동 대지 160㎡ 건물 419㎡ 4층임 전세3천 월3000선 5억7천
- 월산동 새마을고부근 2층상업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동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농성초교근처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유흥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김경12억선 교환가능 8억
- 해남군 신안면 식품공장 등 적합 17344㎡ 김경 24억선 매도 12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5813㎡ 투지에 양호 2억천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김경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1500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1969㎡ 투지에 좋은 720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1억 2천만원
- 매매-9천 9백만원, 즉시 입주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축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정덕동 롯데마트 부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